

4·29 재보선 현장

장흥 2 민주-민노 각축... 무소속 맹추격

4·29 재보선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휴일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3곳에서도 막바지 유세전이 펼쳐졌다.

특히 광주 서구와 장흥의 경우 민주당과 민노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각 후보 진영은 모든 조직을 총동원, 기존 지지층 다지는 물론 숨겨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장흥 2(관산·대덕·용산·회진·안양) 광역의원=민주당 김성(50) 후보를 비롯해 민노당 정우태(48), 무소속 이문택(44), 정종복(42) 후보 등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세적인 관세는 김성 후보의 우세 속에 정우태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성 후보는 제 6, 7대 전남도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강점으로 '검증된 일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 후보는 또 주승용·유선호·박지원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전남도당의 집중 지원에 힘입어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장흥의 장기갑'으로 불리는 농민 출신 민노당 정우태 후보는 '나라값 7만원 보장, 농어민 면세유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농심을 자극하고 있다.

◇장흥 2 선거구 (광역의원)



〈민주 김성〉 〈민노 정우태〉 〈무소속 이문택〉 〈무소속 정종복〉

광주서구다 '작지만 큰 선거' 민주-민노 총력전

영암 라 민주 최병찬 후보 단독출마 무투표 당선

김 후보와 17년간 정치생명을 함께 했던 무소속 이문택 후보는 "김 후보의 출마는 정치적 배신행위"라며 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정표를 자극하고 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노인복지 증진·지역 관광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정당이 아닌 인물 위주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서구 다(화정3·4동, 풍암동) 기초의원=민주당 고경애(49) 후보와 민노당 류정수(41) 후보가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작지만 큰 선거'로 불리는 서구다 보결선거는 양 당 모두 비등있는 인사들을 동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고경애 후보는 '풍암동 지구대 설치'와 '도시철도 2, 3호선 월드컵경기장 경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 후보는 박주선·장상 최고위원, 김영진·김재균 의원 등과 함께 등산로, 상가 등을 돌며 "MB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견제할 힘을 민주당에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서구 다 (기초의원)



〈민주 고경애〉 〈민노 류정수〉

고 후보에 맞선 민노당 류정수 후보는 '깨끗한 서구의회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불법·부정 행위로 같은 곳에서 세번째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민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조세대 법대 출신인 류 후보는 학생운동을 하며 맺은 인맥을 중심으로 민주당 이탈표를 흡수하는 등 세확산을 나서고 있다.

◇영암 라(군서·서호·학산·미암면) 기초의원=민주당 최병찬(47)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 후보는 군서청년회장과 군서농협 감사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회의를 갖고 무투표 당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한표만 더” 여야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양당 지도부, 최대 격전지 부평을·울산 북 집중유세

4·29 재보선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막판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5곳의 선거구 가운데 전주 덕진을 제외한 4곳의 선거구에서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여야가 막바지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 부평을=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로 한나라당 이재훈, 민주당 홍영표 후보 간 우위를 잡지 못하면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의 선거운동과 투표율 등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6일 오후 후보사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5~26일 총력전을 펼치며 이어 이 지역에 호남·충청 출신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동향 출신 의원들을 집중 배치, 지지표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복안이다.

◇전주 덕진=당 지도부의 공천배제에 반발, 무소속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김근식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지율을 높게 끌어올릴수록 향후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동정론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에 기대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주 완산갑=무소속 신 건 후보가 정 전 장관과의 무소속 연대를 앞세워 민주당 이광철 후보를 맹추격,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 맞서기 위해 분열과 분당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도 부각시키기로 했다.

특히 DJ가 민주당 후보 쪽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무소속 풀림을 막아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신 후보측은 반전을 자신하며 정동영 후보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합동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에 이어 27일도 울산과 함께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장을 했던 신상진 의원,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희목 의원을 투입하는 등 경주 유권자들과의 '입체적 접촉'을 전개 중이다.

◇울산 북=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결정됐다.

26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당은 이번 재선거에 내설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조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일화 이후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울산에서 영향력이 큰 정몽준 최고위원은 현지에 상주하시며 하며 지원사격을 벌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멕시코 돼지독감... 지구촌 공포 확산

WHO '비상우려' 선포

멕시코와 미국에서 돼지독감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재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전 세계가 돼지독감 확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돼지독감으로 지금까지 8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州) 외에 북부 산 루이스 포토시주에서 오는 5월5일까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휴교한다고 밝혔다.

호세 알헬 코르도바 보건장관은 이날 저녁 각료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오히카주에서 시작된 돼지독감으로 8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역학적으로 이미 돼지독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르도바 장관은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1천324명의 돼지독감 의심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돼지독감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면서 인구 2천만명의 수도권은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백화점 상가 고객이 70%까지 감소하는 등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앞서 25일 멕시코와 미국의 돼지독감 확산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우려 사안'이라고 선포했다.

일본은 25일부터 멕시코와 직할권을 운행하는 나리타,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여행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총리실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25일 돼지독감 발생지역에서 돌아온 여행자가 독감 증세를 보일 경우 즉각 신고하라는 긴급 통지문을 발표했으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홍콩도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돼지독감으로 8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한 멕시코 군인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취임 100일 '합격점'

뉴스위크 "루스벨트 이후 가장 좋은 점수 받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29일)이 종순 전대통령을 제외하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을 보낸 루스벨트 전대통령 이래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오바마가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경제 위기에 따른 각종 정책과 법안과 관련된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는 등 무난한 업무 수행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취임 초기 좋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北 외무성 대변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14일부 외무성 성명서로 선언한 데 따라 우리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은 불능화 작업으로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우선 그동안 보관해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목포, 목포에 오시면 아름다운 추억을 담을수 있습니다.



- | | | | | | |
|-----------------|--------|--------------------|-----|--------------|------|
| 보해양조(株) 대표이사 | 장대표이사장 | 신안관광(株) 대표이사 | 회장 | 가산토건(株) 대표이사 | 대표이사 |
| 행남자기(株) 대표이사 | 김용주 | 신안건설산업(株) 대표이사 | 김용주 | 근화건설 대표이사 | 김호남 |
| 씨월드고속(株) 대표이사 | 노희용 | 상그리아비치호텔 대표이사 | 노희용 | 부국건설 대표이사 | 이상현 |
| 카첼리레인보우(株) 대표이사 | 이혁영 | 부경일레콤 대표이사 | 이혁영 | 금광임직원 | 일동 |
| 목포시의사회 | 원일동 | 목포농업협동조합 대표이사 | 원일동 | 세빙(株) 임직원 | 일동 |
| | | 목포원예농협대표이사 | 원일동 | 정승건설(株) 대표이사 | 조인형 |
| | | 목포농산물도매시장 이춘용외 임직원 | 원일동 | 보경전기 대표이사 | 이상선 |
| | | | | 만호산업 대표이사 | 이민철 |

